

일제 침략기의 여성 작품에 나타난 근대성

— 蕭紅《生死場》과 張愛玲《封鎖》를 중심으로

金潤秀*

<목 차>

1. 들어가며
2. 蕭紅의 《生死場》 - 여성의 근대 민족담론에의 참여
3. 張愛玲의 《封鎖》 - 근대 문명에 균열을 내는 여성성
4. 蕭紅《生死場》과 張愛玲《封鎖》에 나타난 '근대의식'
5. 나오며

1. 들어가며

'Modernity'는 다의적이며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Modernity'라는 용어는 생성, 질서 등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열, 혼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Modernus'라는 라틴 어휘가 구에서 신으로의 전환기적 시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Modernity'를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보편적 명제로, 항상 미완성인 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형성되어 나가는 '생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 그러나 생성이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질서로 받아들여졌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이러한 의문들이 쌓여 질서의 내부를 흔들면, 질서는 혼돈으로, 생성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Modernity'를 지탱하는, 기본적으로 불변하는 요소

* 高麗大 中文科 博士課程

1) 정진배,《중국현대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pp.210-211 참조.

도 존재하겠지만, 내부의 혼돈과 분열이 또 다른 생성과 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가변적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즉, '근대성'²⁾은 불변적인 기본 요소 외에 질서, 혼돈, 생성, 분열이라는 양면적이면서도 모순적인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근대성'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크게 보았을 때,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 가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근대성'은 어떠한가. 중국의 '근대성'은 주로 혁명, 국가와 같은 거대담론과 연관되어 이해됨으로써 역사적 실체를 구성한 내부의 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술하였듯이 '근대성'은 다의적이며 여러 이질적인 것들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접근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대성' 연구는 혁명을 주도해왔던 남성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남성이 역사 발전을 주도한 반면, 여성은 근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레이초우의 지적에 의하면 근대를 기획하고 실천해나가던 당시, 여성의 특징, 여성성은 수동성, 비합리성, 감성 등 근대적인 주체가 초월해야하는 전통과 결부되었다고 한다. 즉, 여성성은 근대의 기획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지양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다. 남성 텍스트 속의 여성은 위기에 처해있는 중국의 모습으로 상징화되거나 혹은 (準)남성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성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워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의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동일성의 논리³⁾

2) '근대성'이란 Modernity의 역어로, 근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현대성으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근대성'이란 번역은 현재 모더니티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더니티 전반에 걸친 비판적 검토를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현대성'이란 번역은 모더니티의 현재적 영향력과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입장에서 사용된다.-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 261 본고는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글을 진행하므로 '근대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3) 동일성논리는 서로 다르지만 자율적인 A와 B라는 용어를 상정하기 보다 A와 A가 아닌 것(A-)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A와 A-에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은 늘 A이고 A-는 A가 아닌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된다.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6, p.193.

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무장한 중국의 근대화는 동일하지 않은 것을 배제시키는 남성 중심의 동일성 논리로 여성성을 억압, 배제하며 이루어 왔다. 남성성이 근대의 표상이 된 반면, 여성성은 부재나 결핍으로 규정되어,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근대화에 있어 억압 및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근대화의 역사는 남성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활동은 미미했다. 그러나, 남성과 동등하게 주체로 나서려 했던 여성들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근대의 피해자로만 부각되어온 여성들이 근대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수행했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위치하였던 주변부는 남성 위주의 근대 내부에 혼돈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이든 타자화된 여성이든 스스로를 주변적인 타자로 느끼기 때문에 근대의 부정성을 투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의 체계를 동요시키는 여성의 힘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또 다른 생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근대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여성적 글쓰기는 중심의 권력을 분열, 해체시키고 또 다른 생성적인 의미를 지니는 실천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억압, 배제하는 데 이용되어온 부정적 여성론에서 벗어나 여성성⁴⁾ 개념을 재고하여, 여성성과 '근대성'의 관계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蕭紅의 《生死場(1935)》과 張愛玲의 <封鎖(1942)>라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두 작가 모두 일제 침략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조건 하에 작품을 집필했던 작가들이며, 두 작품 역시 일제 침략 하의 근대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제 침략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외적인 조건이었으며,

4) 그렇다면 여성성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까. 페미니스트 이론가 이리가레이에 의하면, 여성성은 어떠한 경직된 틀의 지배도 거부하며, 다중적, 복수적, 전복적 의미를 지니는 여성적 언어와 사유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은 남성적 논리에 의해 포착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리가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적 논리에 의해 수동성, 비합리성, 감각성 등으로 규정되었던 여성적 특질 속에서 부정적 의미가 아닌, 변혁과 생성의 의미를 도출해 볼 수도 있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여성성을 규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에 중요성을 부과하여 본다면 중국의 '근대성'은 좀 더 넓은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작가들 역시 일제 침략으로 인한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다.⁵⁾ 그런만큼, 일제 침략기는 작가의 근대의식을 보다 확고하게 형성,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작품에 투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生死場》은 일제 침략 하에 있던 동북 농민들을 묘사한 작품이고, <封鎖> 역시,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던 상해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근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生死場》은 茅盾 등에 의해 “정감이 이지보다 풍부하게 드러나는 여성 작가 작품”으로 평가되었고, <封鎖> 역시,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대비시킨 작품으로 분석되는 점에서 보았을 때, 두 작품 모두 여성적 언어와 사유의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에 본고는 《生死場》과 <封鎖>의 여성인물의 근대 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성과 ‘근대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비록 일제 침략기라는 공통된 생활 배경을 지녔지만, 농촌과 도시라는 전혀 다른 공간, 그리고 풍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근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蕭紅의 《生死場》 - 여성의 근대 민족담론에의 참여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민족을 불변의 사회적 실체로 보지 않고 상상의 공동체로 본다. 이러한 학설은 남성적 이상을 민족적 정형으로 삼았던 근대의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는데 특히,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문제를 젠더적 시각으로 읽어내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민족국가의 발전 과정은 근대 속에서의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성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蕭紅의 《生死場》은 일제 침략의 고통을 체험한 민중들의 삶을 다룬 소설로, 대표적인 항전문

5) 김소현, <充實과 空虚 사이에서-40년대 穆旦의 시>, 《중국현대문학 제17호》, 중국현대문학학회, 1999, p.189 참조.

학으로 알려져 있는 동시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남성-부권제도의 모순을 고발하는 소설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여성의 삶과 민족주의가 같이 다루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 형성을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1 훼손된 여성의 '몸'으로 드러나는 근대의 억압 구조

주변부에 존재하는 하층 여성들이 세계와 대응하는 일차적 방식은 '몸'이다. 근대적 권력인 제국주의, 자본주의, 남성폭력이 공격을 가하여 훼손된 여성의 몸은 피억압의 정점을 보여준다. 《生死場》의 경우, 특히 여성의 몸에서 구현되는 삶과 죽음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암시적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남성중심사회의 피해자였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蕭紅이 여성 생활과 운명에 특히 관심이 많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여성의 비참한 운명과 불행을 독특하게 묘사했다. 《生死場》속의 여성들은 온갖 사소한 수다와 입담으로 자신들의 말을 쏟아낸다. 그리고 여성의 내면을 심하게 일그러뜨리는 잔혹한 이미지나 묘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여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경험이나 생물학적 상태, 예를 들면 임신, 출산, 강간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면에서 여성들의 억압된 목소리, 숨어있던 분노, 외침이 구현되어 있다.⁶⁾ 일그러진 여성 현실과 내면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枝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자기 배가 무서운 괴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뱃속에 딱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으로 꼭 누르면 딱딱한 것은 더욱 분명하게 만져졌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음을 확신하자 구역질이 날 때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6) 김윤수, 《蕭紅 生死場의 민족의식 연구 -문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63.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경험 중에서 임신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기에 여성의 몸이 경험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실천이 된다. 이러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여성의 몸이 자궁(배)이다. 자궁은 생명력과 재생의 상징이기에 부푼 배를 갖고 싶은 욕망은 곧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욕망과 연결된다. 그리고 자궁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성의 추구가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한다.⁷⁾ 본래 풍요로움과 생명력의 상징이어야 할 임신한 자궁이 여기서는 공포스러운 괴물로 상징된다. 金枝가 임신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녀의 임신이 남편 成業의 폭력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金枝의 임신은 남편 成業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본래 생명이 움트는 곳인 자궁은 남성의 폭력에 의해 상처들이 자리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자궁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명을 잉태하는 장에서 공포를 생성하는 장으로 변모된 것이다.

여성들이 받는 억압의 일차적 원인은 가부장제로 돌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제국주의로 볼 수 있다. '남성'이라는 우월감은 자신에게 부하된 피해의식을 또 다른 타자인 여성에게 쏟아내고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게 한다. 成業이 金枝를 성적, 물질적으로 괴롭히게 된 이유는 억압받는 식민지의 남성이라는 데에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가 남성 농민들에게 가해지면서 남성들은 힘없는 여성들에게 그 분풀이를 함으로써 그 억압의 정도는 전근대 때보다 더 강해진다.

그녀는 月英의 엉덩이 밑이 썩었음을 알았다. 작은 구더기들은 거기서 바글바글 들끓고 있었다. 月英의 몸은 작은 벌레들의 동굴로 변하고 있었다.

이처럼 병든 月英의 몸은 작은 벌레들의 동굴로 비유된다. 구더기, 벌레 등의 동굴 등의 어휘들은 여성의 몸이 얼마나 억압받고 일그러져 있는가를,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몸은 사회의 모순과 억압이 교차하는 곳으로, 이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체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남편은 욕설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녀의 영

7) 변신원, <페미니즘과 몸으로 길 찾기>, 《여성문학연구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p.37.

덩이가 썩어들어 가는데도 벽들을 괴어놓고 부인이 죽어가기만을 기다린다. 남편은 본래 그녀를 위해 온갖 약을 사오고 간병하였으나 일본군에 의해 먹을 것을 빼앗기고 삶이 점점 더 궁핍해지자 부인을 냉담하게 대한다. 이처럼 작품에서 묘사된 변형되고 훼손된 몸은 제국주의와 남성적 질서에 의한 희생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작품 전체에서 발견되는 여성들의 신체를 둘러싼 묘사들은 일상 속에 잠재된 불안과 위기의식 등을 비논리적이고 원초적이며 감성적인 반응으로 드러낸다.⁸⁾

한편, 金枝는 아이를 잃고, 남편 成業마저 죽자, 돈을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다. 그녀는 노동자와 창녀들과 아편쟁이들로 가득 찬 하얼빈에서 양말이나 이불 깎는 일을 하는데, 동료들에게 애써 번 돈을 빼앗기고 어떤 남자에게 강간까지 당하게 된다. 강간 후에 돈을 던져주는 남자, 그리고 金枝가 강간당한 것을 재밌어하며 심지어 돈 벌었다고 부러워하는 동료들의 모습은 문명화된 도시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명화된 도시는 가난한 최하위층 여성의 몸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매춘 행위를 강요당한 金枝의 몸은 남성 폭력과 자본주의가 결합된 피억압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金枝의 어머니는 金枝가 몸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짐작하면서도 그 돈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며 딸에게 돈을 더 벌어들 것을 종용하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매춘 행위를 종용할 만큼 자본주의의 억압의 힘은 막강하다. 문명의 힘은 근대성이라는 막강한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가난하고 무지한 여성을 더욱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식민지 여성의 육체는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민족의 알레고리로 재현되곤 한다. 《生死場》 역시 일본의 침략 하에 동북지역 농민의 항일을 그린 소설인 만큼, 제국주의가 민족에게 가한 폭력을 여성의 몸을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

王婆가 말하기를: (일본놈) 그들은 배부른 여자를 잡아 배를 가르고, ‘紅槍會(의용군)’를 쳐 부순단다. 살아서 노는 아기를 뱃속에서 꺼낸데.

8) 김윤수, 《蕭紅 生死場의 민족의식 연구 -문체론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중앙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65.

이와 같은 식민지 여성의 훼손된 몸은 제국주의에 의한 폭력을 매우 끔찍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행위는 생명의 잉태를 근원적으로 훼손시키고 상실시킨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 폭력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生死場》은 '몸으로 글쓰기'를 서사적 전략으로 하여, 근대의 여성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2.2 항전을 통해 새로운 여성 가치 발견

근대의 역사가 남성의 역사였던 만큼 《生死場》 속의 국가와 민족의 귀속감은 대부분 남성적이며, 이러한 귀속감은 지식인과 도시인에 의해 주변화된 남성 농민에게도 민족 정체성을 심어준다.

“당신 일은 어느정도나 준비가 됐어요?...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또 총을 다룰 줄 알아요”...
趙三是 자기 부인에 대해 서서히 존경심이 일었다. 그러나 좀 더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끝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생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게 된 여성들의 생존 공간은 가정으로 한정되었다. 趙三이 지주에게 봉기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王婆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 바로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민족담론은 남성의 전유물로, 남성에게 새로운 자아를 부여시킨 반면 여성은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은 식민, 봉건주의 뿐 아니라 항전활동에도 배제된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던 여성은 민족담론에 마저 소외됨으로써 더욱 주변부로 내몰리게 된다. 작품 속에서 남성 농민들은 민족 정체성을 획득하고 여성들에게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민족 정체성은 남성/여성이라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항대립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 정체성은 '국민'

이라는 대등한 인간관계를 설정하지만, 결국 인간을 대등하지 않게 분류, 배제시키는 민족담론의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주변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蕭紅 개인의 체험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蕭紅이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여성의 형상만을 그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항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역전시키는 여성들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王婆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씨댁 둘째 나오리는 東家(지주)에게 우리를 위해 이로운 말을 많이 해주셨다고. 이전에 내가 틀렸어. 아마도 지금 벌을 만나봐!” 그가 말할 때 이전의 영웅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얼굴에 약간의 참회, 불안해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있던 王婆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이런 사내를 본 적이 없어...//”...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는 안돼” 이리하여 양심이 있다는 趙三은 매일 시내로 들어갔다. 배추도 저다가 지주집에 바치고, 감자도 지주집에 선물하고,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 때문에 王婆는 그와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견지했다.

농민들을 수탈하는 지주에 반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趙三은 실패하자 쉽게 좌절하고, 지주에 굴복한다. 지주에 굴복하는 것을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趙三의 모습은 한심하면서도 처량해보인다. “그는 그의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견지했다”는 부분을 보면 작가가 趙三을 반어적인 언술로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趙三의 이러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는 王婆는 항일에서나 지주에 대한 봉기에서나 매우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蕭紅은 총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인 王婆를 새로운 여성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王婆는 남편이 때리자 아들과 딸을 데리고 馮씨 성을 가진 남편과 재혼하였다가 그 남편이 죽자 다시 趙三과 결혼하였다. 당시 여인으론 보기 드물게 세 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정조관념에 속박되지 않은 이 여성상은 해학적으로 묘사되는 趙三과 대조적으로 매사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한 王婆에게 있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항일 활동을 하다가 관가에 의해 총살당한 일이다. 王婆는 절망 속에 독약을 복용하지만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王婆의 몸은 강력한 생명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生死場》에는 훼손된 여성의 육체만 나타나지 않는다. 살아난 그녀의 육체는 이전보다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데, 처참하게 훼손당한 육체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王婆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녀가 회복된 육체를 갖게 되는 과정에는 문명의 힘이 아닌 원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육체를 자연성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문명보다는 원시적인 것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王婆의 소생은 여성이 받는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또한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王婆는 말로만 항전을 떠들고 정작 제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남성 인물들을 일깨워주거나 비판한다. 국가, 민족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를 외치면서도 실제 항진활동을 하지 않는 趙三과 달리, 王婆는 자신의 아들이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신의 딸로 하여금 항전에 나서도록 종용하고 그녀 자신도 직접 항일을 돕는다.

王婆는 계집애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까하고 생각하였다. 혹시 꽤 쓸모있는 아이가 아닐까? 王婆는 주저하는 것을 멈추고, 매일 밤 숲 속에서 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조용한 숲 속에서 그녀는 준엄하게 말했다. “복수해야 한다. 오빠를 위해 복수해야 한다. 누가 네 오빠를 죽였지?”

王婆의 종용에 딸은 남성 농민의 무리와 섞이지 않은 채 홀로 항일에 나선다. 그리고 王婆는 항일운동의 굳건한 지지자가 되어 당조직에서 파견된 검은 수염의 남자를 보호하고, 그녀의 딸이 항일투쟁 중에 희생되었을 때도 묵묵히 고통을 참으면서 자신의 항일의지를 견지한다. 그녀는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면, 밖에서 늘 보초를 서면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또한 항일의용군의 일원으로부터 권총을 받았을 때도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인 趙三에게 조차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한다.⁹⁾

이처럼, 대범하고 강인한 여성 형상은 근대의 이상적 남성상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王婆는 대범하고 강인한 면을 지니면서도 감성적이면서 섬세한 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이상적 남성상과는 다르다. 그녀는 매일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마을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데 아픈 月英의 썩은 몸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더러운 배설물과 구더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준다. 또 金枝, 麻面婆와 이씨네 둘째 형수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王婆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간신히 살아나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金枝의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로한다. 그녀는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매우 아끼는데, 늙은 말을 도살장에 팔아버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마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것처럼, 소맷자락이 온통 눈물로 축축히 젖어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강인함은 생명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일본군에 의해 아들을 잃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모성이 강하나, 금세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이전처럼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 주며 항일에 앞선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王婆를 강인하고 대범하게 만들어 주는 힘의 원천을 모성으로 국한시켜 보기에는 어려운 듯 하다.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생명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 하다. 자식 뿐 아니라 주변 모든 것들에 애정을 쏟는 王婆의 형상은 여성의 사랑이 오직 모성으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사랑하는 자식, 이웃, 마을 등을 지키기 위해 항일에 나서는 王婆의 형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구호를 외치는 남성들의 형상과 대비되어 그려짐으로써, 여성적 가치가 단순히 ‘사적 공간’ 안에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부장제, 식민주의, 자본주의 등에 의해 중첩적으로 억압받던 王婆는 항전을 통해 역사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蕭紅은 여성 안에 내재된 여성적 가치들을 재발견하여

9) 김윤수, 《蕭紅 生死場의 민족의식 연구 -문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69.

王嬖와 같은 신여성상을 형상화했다. 즉, 모성과 같은 기존의 여성적 가치들을 넘어, 여성 안에 내재된 가치들을 재발견하여 남성적 근대의 부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3. 張愛玲의 <封鎖> - 근대 문명에 균열을 내는 여성성

이 작품은 일제의 지배 하에 있던 상해라는 도시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억압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의 표출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吳翠遠이라는 여성 인물의 '봉쇄'를 통한 근대 문명으로부터의 이탈과 좌절이 중심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근대에 대한 인식이 여성성과 어떠한 양상으로 맞물려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소통부재와 단절성

<封鎖>는 전쟁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 작품은 아니지만, <封鎖>라는 작품 이름만으로도 전쟁상태의 상징으로 읽혀질 수 있다. 당시 상해를 점령한 일본은 군사작전이나 수색작전을 위해 수시로 도시의 일부구역에 봉쇄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봉쇄는 억압이자 위기의 상징물로 여겨지는데, 이 작품에서 봉쇄는 아이러니하게도 억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장치로 설정된다.¹¹⁾

10) 김승희는 <옹녀'신화'다시읽기>에서 여성성은 본래 호랑이적 특질(강인함)과 곰적 특질(인내력, 순종적, 모성)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성이 순종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왔다고 말한다. 王嬖는 모성과 세심한 마음 이외에 강인함과 대범함까지 갖춘 여성으로, 곰적 특질과 호랑이적 특질 모두를 갖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벗어나 여성성의 다양한 특질을 보여주는 신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승희, <옹녀'신화'다시읽기>,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11) 임우경, <전쟁과 일상-전쟁체험과 張愛玲의 문학세계>, 《중국현대문학 제17호》, 중국현대

<封鎖>의 시작은 지렁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전차의 묘사로 시작하는데, 마냥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문명인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전차를 모는 사람은 전차를 몬다. 두 줄의 전차궤도가 물 속에서 갓 나와 커다란 태양 아래 반짝이는 두 마리 지렁이처럼 몸을 쭉 뻗었다 오므리고 다시 쭉 뻗었다 오므리며 그렇게 앞으로 한없이 나아간다. 미끈미끈 길고 긴 지렁이가 전진한다. 끝없이, 끝도 없이……전차 모는 사람의 눈동자가 꿈틀거리는 두 줄의 궤도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미치지도 않는다.

여기서 끝도 없이 전진하는 지렁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지겹도록 반복하며 살아가는 문명인들의 모습이다. 張愛玲은 두 줄의 궤도만을 쳐다보는 전차 모는 사람처럼 반복적인 삶의 부조리함을 인식조차 못하는 문명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차 안으로 표상되는 이 시공간은 보들레르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지나가버리는 곳이다. “미치지도 않는다”라는 문장은 빠른 속도로 스쳐지나가 버리는 근대의 시간 속에서 문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억압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封鎖만 아니라면 전차는 영원히 전진할 참이었다. 封鎖경보다. “때르르르르…”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리고, 점점이 작고 차디찬 ‘르’자들이 하나로 쪽 꺾어지면서 시간과 공간들을 갈라놓았다.

한편, 영원히 달릴 것 같던 전차는 ‘봉쇄’ 사이렌에 의해 멈추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갈랐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전차가 낯선 시공간으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낯선 공간은 비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다. ‘봉쇄’된 시공간은 근대 문명의 이면, 즉 실재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발견할 수 없던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클로즈업시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봉쇄는 일제로부터의

억압을 상징하는 시공간이 아니라, 근대 문명의 일상적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공간이다. 이 시공간 속의 인간들은 ‘봉쇄’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 생각없이 일상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 이 클로즈업된 일상 속의 인간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놓여 있는 듯 하다. 봉쇄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과 미처 건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내려 쳐진 철문처럼 인간들 사이에 벽이 놓여 있다.¹²⁾

그녀는 착한 딸이고 착한 학생이었다.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이른바 ‘호인’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샤워를 하고 빠지 않고 신문을 보았으며, 라디오를 들어도 유행가나 코메디, 경극같은 것은 생전 듣지 않고 대신 곧 죽어도 잘 알지 못하는 베토벤이나 바그너의 교향악만 들었다.

吳翠遠은 명문 대학 영어 강사로, 엘리트 여성이다. 인용문에 묘사된 ‘호인’은 문명인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의 가족을 나타낸다. 이처럼 그녀는 근대 문명과 그녀의 가족과 같이 이를 추종하는 근대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가식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은 ‘봉쇄’를 일탈의 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클로즈업된 일상을 보여주는 ‘봉쇄’는 그녀의 욕망에 의해 조금씩 일탈의 시공간으로 바뀐다.

그녀는 지금 봉쇄 시간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채점하려고 한다. 첫 시험지를 펴 보니 남학생이 쓴 것이었다. 격렬하게 도시의 죄악을 비판하였는데 정의감에 찬 분노로 충만했고 문법에 전혀 맞지않는 문장으로 “붉은 입술의 매음부……세계는……하류 무도회장과 술집 사이에 있다”라고 욕을 한다. 翠遠은 나지막하게 읽어보다가 붉은색 펜을 꺼내 A를 준다. 만약 평상시였다면 점수를 주고 말았을텐데 오늘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 왜 그에게 이런 높은 점수를 줬을까.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달아오른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는다. 이 학생은 기탄 없이 그녀에게 이런 말들을 해준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12) 임우경, <전쟁과 일상-전쟁체험과 張愛玲의 문학세계>, 《중국현대문학 제17호》, 중국현대문학학회, 1999, p.177 참조.

집에서는 좋은 딸, 학교 안에서는 좋은 학생인 翠遠의 완벽해보이는 삶은 표면적인 것이다. 그녀는 이성적 사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가슴 속에 지니고 있다. 부글거리는 욕망을 가슴 속에 안고 있으면서, 평소 그것을 외면한 채 ‘호인’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이는 근대적 질서가 그녀에게 강요한 삶과의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질서가 인간의 삶에 부여한 가식적인 삶은 그녀로 하여금 일탈을 꿈꾸게 한다. 어떤 남학생이 적은 도시의 욕망에 관한 글을 보고 내면화되었던 욕망이 꿈틀거림을 느낀다. “평상시였다면 점수를 주고 말았을텐데 오늘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봉쇄’라는 시공간은 그녀의 일탈 욕망을 이끌어낸다. 그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기탄없이 그녀에게 이런 말들을 해준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욕망을 공유할 수 있는 타자와의 소통을 원한다.

3.2 ‘봉쇄’공간에서의 사랑을 통해 문명 일탈

근대적 질서가 인간에게 부여한 고독감을 깨뜨리기 위한 翠遠의 욕망은 ‘봉쇄’라는 일탈 공간에서의 일탈적인 ‘사랑’으로 구현된다. 라캉의 ‘사랑’ 개념에 의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나 그 감정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A자체가 아닌 A를 통한 무엇, 다시 말해 타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상 그 사람 안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 줄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것이다.¹³⁾

여주인공 翠遠은 신문에 찌빵을 싸서 들고있는 宗楨의 모습을 보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호인’과는 달리 근대 문명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인’을 꿈꾸는데, 呂宗楨을 바로 그 ‘진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사실 宗楨은 그것을 사오라고 한 부인을 속으로 원망하면서 창피하게 여긴다. 그리고, 宗楨은 자신의 딸

13) 권택영, <욕망에서 사랑으로>, 《우리시대의욕망읽기》, 문예출판사, 1999, p.155.

을 노리는 보기 싫은 조카를 피하기 위해 모르는 여성인 吳翠遠 앞자리로 가 일부러 그녀에게 수작을 거는데 翠遠은 그가 자신에게 반해 수작을 거는 것으로 착각한다.

翠遠은 宗楨에게 진인의 면모가 있다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翠遠의 宗楨에 대한 '사랑'은 고독감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연속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다. 宗楨 역시 자신을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다. 吳翠遠이 呂宗楨을 한 남자로 인정해주고 그의 처지를 위로해주자 시간이 지날수록 宗楨의 翠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翠遠을 보고 '옆의 이 여자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그녀의 팔은 짜낸 치약처럼 희기는 희었다.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짜낸 치약처럼 볼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던 그는 나중에 그녀의 얼굴이 모란꽃 같고 머리카락은 바람속의 꽃술같다고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한다.¹⁴⁾ 외모로나 지위로나 평범한 宗楨은 자신을 보며 얼굴을 붉히는 翠遠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이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翠遠을 사랑스럽게 느낀다. 줄곧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위로와 동정을 받기 원하는 宗楨은 翠遠과의 관계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매력을 확인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翠遠에게 '사랑'은 근대적 질서를 일탈하기 위한 도구이고, 宗楨에게 '사랑'은 남자로서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도구이다.

한편, 환상으로나마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던 차에 유부남인 呂宗楨은 吳翠遠에게 첩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의 용속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돈 많은 사위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呂宗楨의 용속함을 깨닫고도 그에게 첩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翠遠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녀 집안의 사람들을 - 먼지 한 점도 묻지 않은 호인들 - 그녀는 그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그녀를 기만했다. 그들은 그녀가 돈 많은 사위를 찾기를 원하지만 宗楨은 돈은 없고 아내가 있다. - 그들을 화나게 해도 좋아! 화내라지. 화내도 싸!

14) 김순진, 《張愛玲 소설 연구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몸·권력·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211 참조.

이처럼 그녀의 '사랑'은 근대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위한 도구적 '사랑'이다. 그러나, 여기서 翠遠의 일탈은 가부장적 남성의 욕망으로 귀환되어, 다시 가부장제 하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재생산된다. 翠遠의 근대문명으로부터의 일탈행위는 첩이라는 근대 가부장제의 대표적 상징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한편, 翠遠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란 宗楨은 돈 없음을 핑계로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해 버린다. 보편적인 가치 질서에 회의를 갖고 이를 무너뜨리려 노력하던 翠遠의 노력은 다시 용숙한 호인으로 돌아가버린 宗楨으로 인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宗楨에게 있어 翠遠과의 관계는 단지 남자로서의 매력을 확인받기 위한 관계였고, 이미 그의 욕구가 충족된 이상, 더 이상 翠遠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는 그와의 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가족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翠遠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翠遠은 '진인'으로서의 宗楨를 환상하며 잠시 '사랑'을 나누지만, 그와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이 '사랑'은 실패로 끝난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헛되이 차버렸다. 이렇게 멍청한!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아한 숙녀다운 울음이 아니다. 그녀는 계속 그의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또 하나 늘었다!

'사랑'이 좌절되자 吳翠遠은 세상에 '호인'이 하나 더 늘었다며 통곡한다. 돈으로 상징되는 문명에 부딪쳐 그녀의 '진인'으로서의 삶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翠遠의 '사랑'은 환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일탈을 이끌어낼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비현실적인 사랑을 가능케하는 매개인 '봉쇄'라는 시공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張愛玲은 여성 인물인 吳翠遠을 근대 문명을 일탈하고자 하는 인물로, 남성인물인 呂宗楨을 근대 문명을 표상하는 인물로 그렸을까. 이것을 우연으

로 볼 수 있을까. 합리성, 논리, 이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 문명의 법과 체제를 만들고 이끈 존재는 남성인 반면, 여성은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며 감상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張愛玲은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이며 감상적인 吳翠遠을 통해 합리성, 논리성, 이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 문명에 균열을 내하고자 했다.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호인’의 삶이 가지는 허위성을 인식하는 인물로 비합리적인 욕망을 지닌 吳翠遠을 설정한 것을 우연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張愛玲은 이 작품에서 근대 문명 질서를 여성성을 통해 와해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4. 蕭紅 《生死場》과 張愛玲 <封鎖>에 나타나는 ‘근대의식’

蕭紅의 《生死場》과 張愛玲의 <封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여성 인물의 근대체험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난 ‘근대성’의 특징은 남성 위주의 근대에 대한 부정의식이다. 오랜 시간 여성들은 ‘중심’에서 배제된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근대에 여성성은 더욱 억압되고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근대적 권력의 억압적 속성 때문에 여성은 근대 역사의 주변부에서 근대적 권력이 내포하고 있는 폭력의 본질과 모순을 투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¹⁵⁾ 두 작품 속의 여성 인물 王婆와 吳翠遠은 근대 질서에 영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왜곡된 모순의 단면들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사회질서 속에서 늘 주변적인 것이 되어왔기 때문에 남성 보다 여성들이 새로운 의미질서를 생성해낼 가능성이 훨씬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¹⁶⁾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生死場》의 경우, 일제 침략이라는 민족의 위기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항일의 주체로 나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生死場》에서 제국주의는 여성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기제로, 일본군의 침

15) 김순진, 《張愛玲 소설 연구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몸·권력·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208 참조.

16)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6, p.249.

락을 계기로 여성들은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자신들의 신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蕭紅은 王婆라는 감성과 대범함을 골고루 갖춘 신여성상의 항일 활동을 형상화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하게 역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근대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生死場》의 여성인물이 중층의 모순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부 의식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은 어떤 면에서는 근대의 충격이 대도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지속적인 발전 논리가 추구되는 공간인 반면, 농촌은 전근대적인 것에서 근대적인 것으로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권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生死場》 속의 王婆는 주변부 의식을 더욱 느낄 수 밖에 없으며, 근대의 여성 억압적 성격을 뚜렷하게 감지하게 된다. 王婆는 전근대와 근대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근대 극복의 가능성을 갖게된다. 즉, 전근대와 근대세계의 부정성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안에 내재된 여성성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반면 <封鎖>의 경우, 전쟁은 문명의 이기를 드러내고 또 문명으로부터의 일탈을 가능케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근대 문명으로 인한 인간 사이의 소통부재와 단절이다. 도시 문명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봉쇄'의 의미마저 감지 못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마비된 문명인들의 위선이다. 張愛玲은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이며 감상적인 吳翠遠을 '진인'으로, 합리성, 논리성, 이성과 같은 근대 문명 체계에 맞추어 살아가는 呂宗楨을 '호인'으로 상정하면서 '호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한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문명 질서를 吳翠遠이 지니고 있는 여성성으로 와해시키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성 중심의 근대에 균열을 일으키지만 그 균열은 '봉쇄'라는 일탈 공간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 세상을 바꾸게 할 만한 힘을 갖추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근대 문명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한 翠遠과의 접촉을 통해 宗楨 역시 조금씩 스스로의 마음을 문명으로부터 해방시켰음을 간과할 수 없다. 처음에는 翠遠에게 별 매력을 못 느끼다가 점차 그녀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원인을 宗楨의 마음 속에

존재하였던 일탈 욕망이 翠遠에 의해 조금이나마 표출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진인'에 대한 吳翠遠의 갈망은 '호인'을 표상하는 呂宗楨의 합리적인 문명체계를 조금이나마 흔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탈은 일상적인 삶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삶을 억압하는 세계를 변혁시켜보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탈의 좌절을 실패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근대는 남성의 역사로, 여성은 근대의 기획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근대화는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더욱 합리성, 이성, 논리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남성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성의 타자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 각자의 내면화된 여성성은 내면의 것을 표출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 과정은 자연스럽게 여성 주체의 경험에 대한 형상화로 이어진다. 숨겨져 있던 여성의 자아는 글쓰기를 통해 내적 세계에서 외적 세계로 표출되면서 발견되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蕭紅의 《生死場》과 張愛玲의 <封鎖>와 같은 몇몇 여성 작가의 텍스트 속에서, 주어진 여성의식이 아닌, 여성의 자아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얻어진 진정한 여성의를 읽어낼 수 있다.

蕭紅과 張愛玲의 텍스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의식이 투영된 근대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남성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남성의 텍스트보다 蕭紅과 張愛玲과 같은 여성의 텍스트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여성소설의 '근대성'을 규명함으로써,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근대성'논의를 다양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근대 시기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시기로, 남성 주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를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려는

시도와 늘 함께 하였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중심과 주변, 이항대립적으로 나눔으로써 일의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성/비이성, 도시/농촌, 남성/여성 등 이항대립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라 할지라도 그 움직임이 일방향적이라고 단정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蕭紅의 《生死場》과 張愛玲의 《封鎖》에서 근대의 일의적 가치를 흔드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변부를 걸어갔던, 또 걸어갈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근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정진배, 《중국현대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6
- 우에노 치스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8.
- 劉禾, <文本, 批評與國民國家文學>, 《語際書寫》, 三聯文庫, 1999,
- 황종연, <모더니즘의 망령을 찾아서>,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차태근, <달리는 전차 속의 꿈-張愛玲의 <封鎖>의 시간성에 대한 분석->, 《長城語文》
창간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문과 학생회
- 김순진, 《張愛玲 소설 연구-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몸·권력·서사를 중심으로-》, 한국
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임우경, <전쟁과 일상-전쟁체험과 張愛玲의 문학세계>, 《중국현대문학 제17호》, 중국현
대문학학회, 1999
- 임우경, <張愛玲 단편소설 '봉쇄'의 환상성에 대해>, 《20世紀 中國文學과 페미니즘》, 한
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
- 김승희, <웅녀'신화'다시읽기>, 《페미니즘 문학비평》, 프레스21, 2000
- 변신원, <페미니즘과 몸으로 길 찾기>, 《여성문학연구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 권택영, <육망에서 사랑으로>, 《우리시대의육망읽기》, 문예출판사, 1999
- 김미영, <문명의 불모성과 여성의 자연성>,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
샘, 2000
- 정현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동녘, 2001.

<中文提要>

本文提出女性主義的觀點，通過有關性別的視角，分析蕭紅與張愛玲筆下女性人物的現代意識來了解女性與現代性的復雜關係。蕭紅與張愛玲都是日帝侵略下寫作品的作家，蕭紅《生死場》與張愛玲《封鎖》作品里的背景也是日帝侵略期。因日帝侵略而引起的危機感，作家的思想更加成熟，兩個作品里可以發現作家對於現代性的看法。蕭紅與張愛玲格外注重女性的生存環境和命運。尤其是真實地表現女性面對男性的特權而必然處於弱者地位。這兩個作品里的女性人物，王婆與吳翠遠面對社會的觀念與偏見，對於男性爲主的現代文明持否定的想法與態度。因女性作爲邊緣人，可以透視男性主導的現代文明的矛盾。本文試圖在蕭紅與張愛玲文本中尋找顛覆傳統女性的依據，借此重新理解中國現代文學史中的女性形象。

중심어 : 여성성, 남성성, 근대, 근대성, 근대의식, 민족, 문명, 전쟁